

2026년 2월 중고차수출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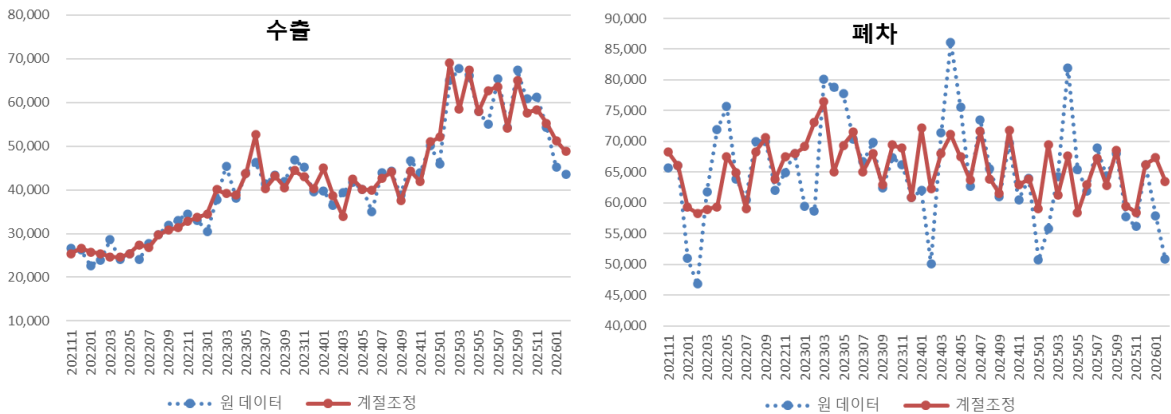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Korea Auto Auction Association

2026년 2월 한국 수출 및 폐차 시장 동향

말소 차량은 크게 수출용 말소와 폐차용 말소로 구분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용도상 수출용 말소로 구분된 차량 외에는, 대폐차, 도난, 멸실, 연구시험, 편취, 횡령, 천재지변, 면허취소, 운행정지, 부정등록 등 다양한 사유가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편의상 "수출예정"으로 말소한 차량을 수출로 정의하고 나머지는 폐차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출예정으로 말소 이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수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은 폐차로 전환되거나 신규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로 인해 실제 수출 시점은 본 분석 자료에 나타난 수출월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월별 정확한 수출 물량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HS 코드 기반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수의 기관이 이를 활용해 공식 수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본 분석은 이러한 무역협회 통계를 대체하기보다는, 수출 이전 단계에서의 구조적 정보를 보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향후 수출 동향과 경쟁력 분석에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1> 월별 수출/폐차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그림 1>은 월별 중고차 수출 대수와 폐차 대수를 함께 제시한다. 2025년 전반에 걸쳐 강한 증가세를 보이던 중고차 수출은 최근 들어 다소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특히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며, 월별 수출 물량이 다시 202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점은 향후 추이를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정은 일시적인 흐름 이후 재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반대로 추세적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며, 이는 향후 2~3개월의 데이터 흐름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수출 부진이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폐차 대수 또한 전월 대비 12.2%, 전년 동월 대비 8.9%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수출 거래 감소 흐름과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냈다. 과거에는 폐차 물량이 감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보완적 관계가 관찰되었으나, 최근에는 두 지표가 동시에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데이터가 보다 축적되는 시점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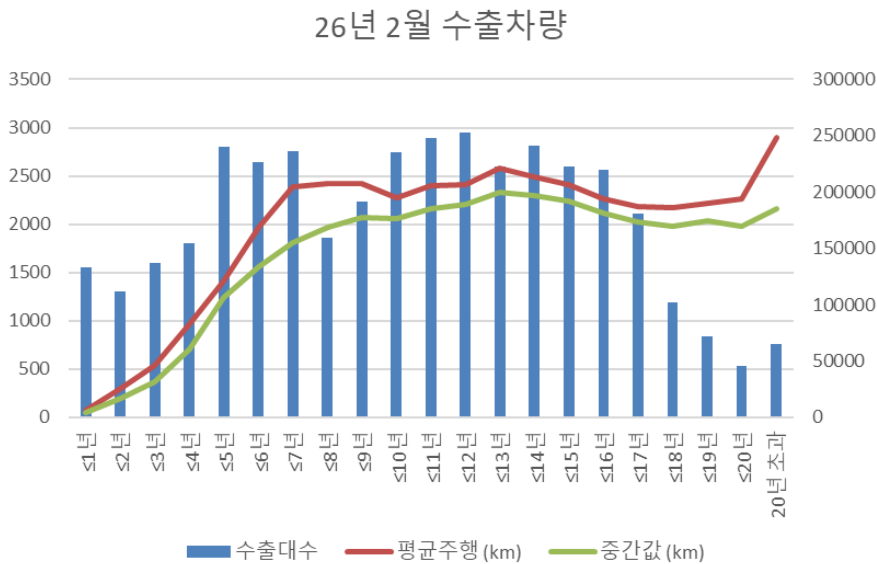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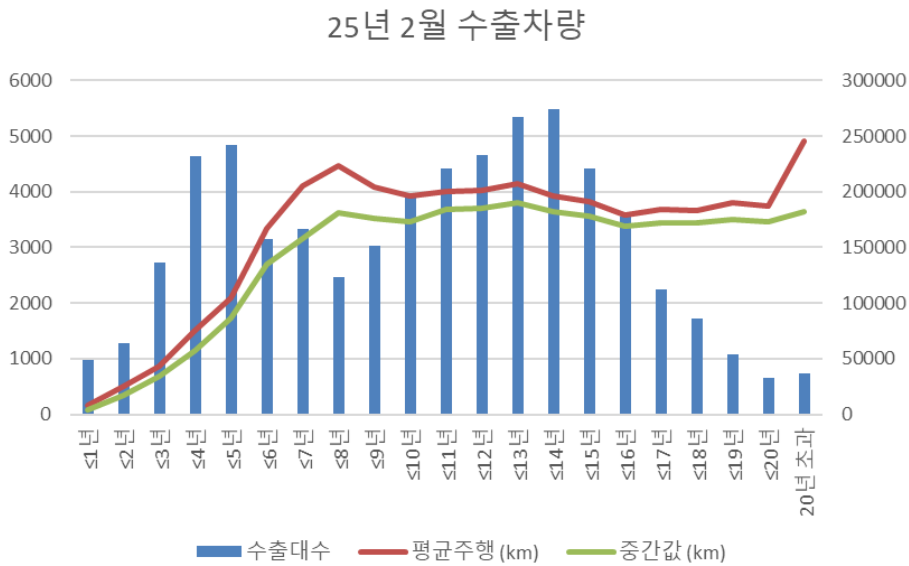
1. 2월 수출 시장 상세 분석

<그림 2>는 2025년 2월과 2026년 2월을 비교하여 수출 차량의 연식 분포와 주행거리 패턴을 제시한다.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두 시점 모두 전반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며, 수출 차량의 사용 강도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연식 분포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2025년 2월의 경우 이봉(bi-modality)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정 연식 구간에 수출이 집

중되는 패턴을 보였다. 이에 비해 2026년 2월에는 두 봉우리 사이의 공백이 상당 부분 완화 되면서, 4년차부터 17년차까지 보다 연속적이고 균등한 분포로 확장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 시장의 확대와 함께 신규 국가 및 수요처가 다변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출 대상 차량의 연식 스펙트럼 역시 한층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연식별 수출 대수 및 주행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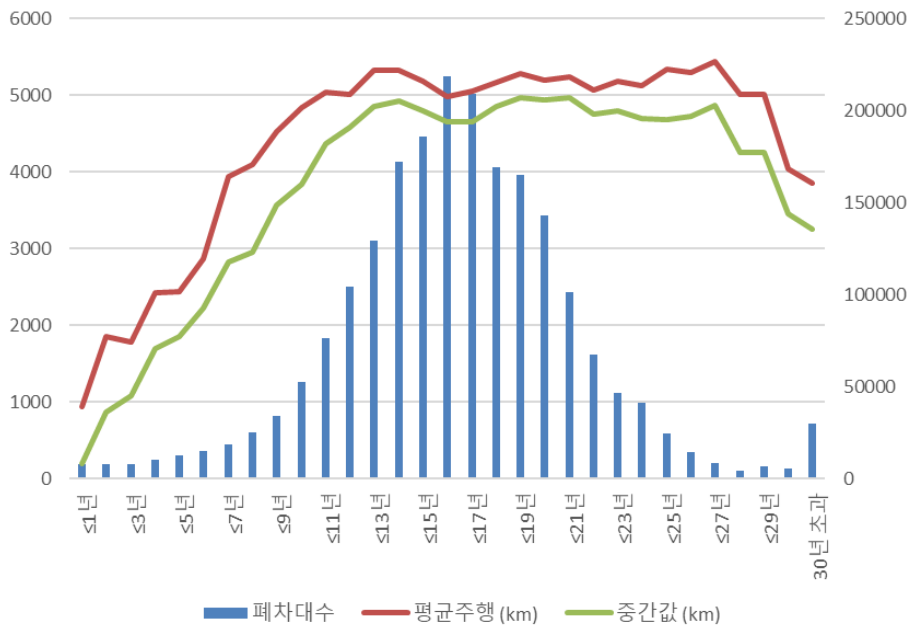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2. 2월 폐차 등록 상세 분석

<그림 3>은 폐차 차량의 연식별 분포와 주행거리 패턴을 보여준다. 연식 분포는 단일 봉우리를 형성하며, 좌우 대칭에 가까운 정규분포 형태를 나타냈다. 폐차는 주로 14~19년차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연식과 관계없이 평균 약 22만 km 내외를 기록한 차량일수록 폐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차는 자동차가 생산·판매된 이후 여러 차례의 중고차 거래를 거쳐 도달하는 생애주기의 최종 단계라는 점에서, 차량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기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소는 신차-중고차-폐차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형화된 패턴으로 구조화함으로써 경매 시장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석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3> 연식별 폐차대수 및 주행거리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3. 요약 및 시사점

최근 중고차 수출 시장은 2025년 전반의 강한 성장세 이후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5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며 수출 물량이 2024년 수준으로 회귀한 점은, 시장이 일시적 조정 단계에 있는지 혹은 구조적 둔화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변수까지 고려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폐차 물량 역시 수출 감소와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폐차 감소가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보완적 관계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최근에는 두 지표가 동시에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 구조 또는 수요 기반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데이터 축적을 통한 정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수출 차량의 구성 측면에서는 주행거리 패턴은 큰 변화가 없으나, 연식 분포가 이봉 구조에서 보다 연속적인 형태로 확장되며 수출 대상 차량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이는 수출 시장의 지역적 확장과 수요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정 연식에 집중되던 기존 구조에서 점차 분산된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폐차 시장은 여전히 14~19년차 및 약 22만 km 내외 구간에서 집중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 생애주기의 종착점이 일정한 물리적·사용적 한계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안정적인 폐차 패턴과 변화하는 수출 구조를 함께 고려할 때, 향후 중고차 시장은 단순 거래량 분석을 넘어 차량 생애주기 전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고차 수출 및 폐차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다변화와 시장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과도기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경매 시장 및 유통 참여자들은 연식별·주행거리별 물량 구조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량 생애주기 기반의 정교한 가격 및 리스크 판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산하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연구소장

조성봉

부소장
(운영총괄)

김원태

수석
객원연구원

고석빈

이 분석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 상담은 불가하며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또는 이메일 info@aaa-korea.com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